

## [11차시] 일본식 한자어 및 외래어



### 1. 구좌

구좌(口座)는 부기에서 계정마다 금액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계산하는 자리를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계좌(計座)이므로 ‘계좌’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다” 등처럼 쓰면 됩니다.

#### ※ 심화학습

#### ‘계좌’의 종류

계좌(計座)에는 예금계좌와 계정계좌가 있습니다. 예금계좌(預金計座)는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를 가리킵니다. 계정계좌(計定計座)는 부기에서 계정마다 금액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계산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 2. 잔고 / 잔액

잔고(殘高)는 나머지 금액을 가리키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식 한자어는 잔액(殘額)이므로 ‘잔고’ 대신 ‘잔액’이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금 잔고액을 확인하러 간다” “통장 잔고액이 바닥났다” 등처럼 쓰면 됩니다. ‘나머지 액수’라는 말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 3. 굴삭기 / 굴착기

굴삭기(掘削機)는 땅이나 암석 등을 파거나 파낸 것을 처리하는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식 한자어는 굴착기(掘鑿機)이므로 ‘굴삭기’ 대신 ‘굴착기’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면 시간이 훨씬 절약된다” 등처럼 쓰입니다.



※ 심화학습

‘굴착기’와 ‘포클레인’

<굴착기>

‘굴착기’는 토목공사에서 지면보다 낮게 구멍을 파내는 장비로 지반의 구멍을 뚫는 작업과 암반을 부수거나 깨트려서 퍼내는 작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토질의 상태, 공사의 종류·규모, 현장의 상황, 토량(土量), 공사기간, 운송로의 상황 등에 따라 적합한 기계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기계에 파워셔블, 불도저, 백호, 그레이더, 드래글라인, 모터스크레이퍼, 트렌처, 모터그레이더, 착암기 등이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굴착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나, 퍼 담는 일이나 근거리의 운반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굴착기인 불도저는 굴착뿐만 아니라 개간, 제설(除雪), 정지(整地) 등 다목적으로 쓰이며, 기계의 용량도 4~5t 에서 20t 이상, 초대형인 것은 30t 이상의 것도 있습니다.

<포클레인>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의 대표적 굴착기 업체의 상표명인데 일반명사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

캐터필러식의 본체에 붙어 있는 붐 끝에 굴착용 디퍼와 운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굴착용 디퍼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드래크글라인, 클램셀, 드래그셔블 등이 됩니다. 토사와 암석의 상태, 굴착방법, 이동성 등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4. 매상고 / 판매액

매상고(賣上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판 수량이나 대금의 총계를 가리키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식 한자어는 판매액(販賣額)이므로 ‘매상고’ 대신 ‘판매액’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판매액이 줄어들었다” “월 판매액의 30%가 영업 사원에게 수당으로 주어진다” 등처럼 쓰입니다.

## [11차시] 일본식 한자어 및 외래어



### ※ 심화학습

‘매(賣)’나 ‘매(買)’가 들어간 단어는 대부분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우리말>

매물(賣物, うりもの) → 팔 물건, 팔 것  
매상(賣上, うりあげ) → 판매, 팔기  
매상(買上, かいあげ) → 사(들이)기  
매상금(賣上金, かいあげきん) → 판매액  
매수(買受, かいうけ) → 사(들이)기  
매입(買入, かいいれ) → 사(들이)기  
매장(賣場, うりば) → 판매장  
매절(賣切, うりきれ) → 다 팔림, 절품  
매점(買占, かいしめ) → 사재기  
매점(賣店, ばいてん) → 가게  
매출(賣出, うりだし) → 판매, 팔기

### 5. 곤색/ 감색

\*(감색, 곤색) 옷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곤색(紺色)은 검푸른 남색을 가리키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식 한자어는 감색(紺色)이므로 ‘곤색’ 대신 ‘감색’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정에 가까운 감색 양복을 입었다” 등처럼 쓰입니다. ‘곤색 양복’ ‘곤색 가방’은 각각 ‘감색 양복’ ‘감색 가방’이라고 해야 합니다. ‘감색’과 같은 말로는 ‘검남색’이나 ‘진남색’이 있습니다.



## 6. 견습 / 수습

\*우리 회사는 해마다 (견습, 수습)사원을 모집한다.

견습(見習)은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 또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식 한자어는 수습(修習)이므로 ‘견습’ 대신 ‘수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수습 딱지를 뗐다” 등처럼 쓰입니다. ‘견습생’ ‘견습기자’는 각각 ‘수습생’ ‘수습기자’라고 해야 합니다.